

통계부재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불황



김희진

전 삼화농원 기획실장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문구가 문득 생각이 난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문구는 없어야 되겠다. 즉 고생은 없고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계인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양계업계가 '87년의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88년 무진년의 호황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지만 양계업종의 희비가 교차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경기를 크게 대별해 보면 육계업과 부화업, 산란업과 부화업계가 끊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관계가 밀접한데도 금년도는 서로의 업 발전을 위하다 보니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부화업계가 스스로 생산조절을 해주었으면 이런 불황은 겪지 않았을텐데 하고 생산자는 아쉬움을 한마디 하곤 하지만 반대로 양계업자는 보다 싼 병아리를 구입하려고 생산되는 물량에 관계없이 계속 입추함으로 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 업계는 오리무중의 불황을 맞고만다.

이런 현상이 산란부화업계와 산란업계가 이같은 일을 맞아 '88년은 생각하기 싫은 한해가 되었고 육계부화업계와 육계업계는 초반에는 동반호황, 동반불황을 되풀이하다가 후반기에는 부화업계는 고전하고 육계업계는 호황을 맞은 경우가 되었다.

채란부화업

양계업종중 가장 어려웠던 업종이 단연 채란계 병아리를 부화하는 채란부화업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것 같다. 부화업 자체를 그만둔 부화장이 많이 속출하고 대략 87년도 30여업체가 넘게 영업을 하였으나 88년 하반기는 15개업체도 안될 정도로 반정도가 채란부화를 그만두거나 육계부화업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으며 가격면에서도 87년 수당 평균가격이 417원이었으나 88년은 378원으로, 무려 39원으로 이금액을 연간수수료 계산하면 100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87년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보면 실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불황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계란가격의 폭락, 둘째는 산란 P.S의 과잉입식으로 볼 수 있다.

계란가격의 폭락은 바로 병아리를 입추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88년의 계란가격을 살펴보면 연중 생산비에 도달한 기간이 한달이 채 안될 정도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아리의 신규입식은 커녕 현상태를 끌고가기가 어려울정도가 되자 임시방

편으로 환우를 시키는 편법을 쓰게 되었고 이로인한 병아리수요는 점점 줄어들자 병아리가격은 물건값이 아니고 쓰레기 신세가 되고만 것이었다.

이런 추세에서도 부화장에서는 종계의 과다입식으로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병아리가격을 고수하거나 지키기는 커녕 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추업자에게 억지로 병아리를 맡겨 중추업자까지 도산시키는 사태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새로운 업종이 성업하는듯 하였으나 불황기가 장기화되자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게 되었다.

종계 PS 입식수수를 살펴보면 금년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 내년도 병아리 생산은 비교적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PS(종계)의 과잉입식 때문 '85년 호황의 영향으로 종계 병아리의 생산수수가 증가하여 '86, '87년도 종계입식이 거의 증감없이 많은 수수가 입식되어 '86년 하반기 이후 실용계 입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87년 이후 계란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이후 계속 불황을 맞은 영향

으로 금년 10월까지 PS 입식은 295,438수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3.7% 감소하기는 했으나 11,12월을 기해 다시 병아리값이 회복세를 나타내자 PS입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수가 입식될 것으로 보여져 내년도 병아리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채란부화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나타나는 봄, 가을 입추에도 열기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보여지며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란가격의 상승세로 병아리가격도 비시즌의 호황이 계속된다. 이 흐름이 내년도에도 이어지도록 부화업계가 모여 정보도 교환하고 가격조정 및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호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육계부화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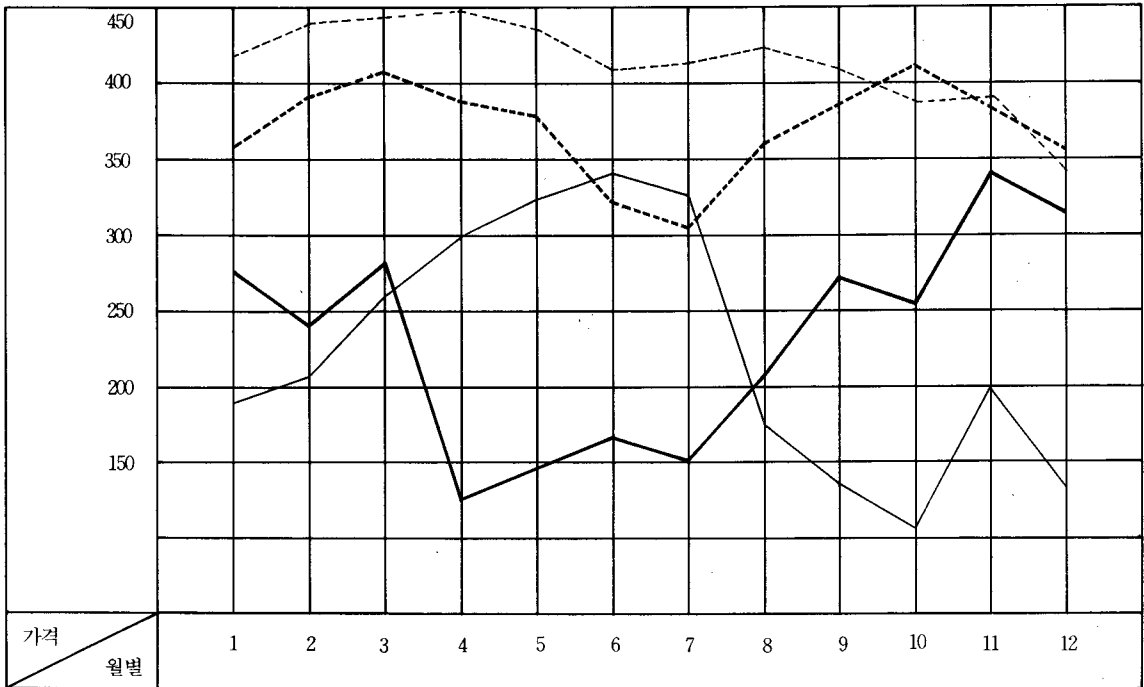


표1. 실용계 병아리 가격동향

— '88육계 - - - - - '88채란
 - - - - - '87육계 - · - · - '87채란

표2. 증계(P.S)입식현황

용도별	월별	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육 용	87	107,500	160,300	195,000	222,100	240,250	202,300	280,726	269,150	239,930	205,360	103,530	126,508	2,352,654
	88	131,500	177,891	297,766	267,400	198,910	232,000	297,510	198,250	236,900	267,128	120,000	100,000	2,525,255
산 란	87	28,175	29,255	19,160	23,350	65,660	82,500	43,580	35,100	4,500	15,000	49,900	53,137	449,317
	88	51,988	26,000	16,077	27,920	65,624	30,725	8,325	42,034	2,825	23,952	65,000	93,000	453,470

같은 부화업이면서도 채란부화업과는 다른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금년도를 돌아보면 육계업계와 부화업계는 희비가 서로 엇갈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2월은 부화업이나 육계업이 다같이 산물시세가 그런대로 유지하는 동반호황을 맞았으나 호황의 영향으로 병아리는 서서히 증가하고 생산잠재력도 높아 물량은 급격히 늘기 시작해 3월 이후 육계값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그 여파가 병아리값에 바로 영향을 미쳐 생산비의 50% 이하에서 계속 거래되면서 복이라는 큰 소비기가 눈앞에 있으므로 해서 병아리 생산감축에는 눈을 돌릴 수가 없는 처지에서 육계값은 계속 하락함에 따라 병아리값은 복병아리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커녕 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처지에서도 생산은 최고치에 달해 이로 인한 부화업계의 타격은 근래에 보기도 못한 성수기 불황으로 도산 내지 스스로 감산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7월 이후 병아리는 줄기 시작했으나 육계업계는 복이 지난 입추라 별로 입추하려고 하지 않아 병아리값의 회복은 오리무중의 사태를 맞고 말았다.

반면 육계가격은 초복을 기점으로 해서 사상초유의 시세로 폭등, 호황이 약 3개월동안 지속되자 그때 서야 연말 병아리 내지 구정 병아리 입식을 위한 본격적인 입추로 인하여 병아리값은 10월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맞고 있다.

금년도 병아리 시세를 살펴보면 연평균 228원으로 낮은 시세는 아닌 것 같지만 전년도 평균 227원으로 불황을 겪은 탓으로 그 영향은 더욱 크고 특히 연간 50%정도가 나오는 4,5,6,7월의 평균추대가 147원이었다는 것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었음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87년도 평균시세는 금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그런대로 호황이었던 것이 4~7월의 시세가 327원으로 부화업계의 수익면에서는 어떤 해보다 좋았다.

육계 부화업계의 불황원인으로 '87년도 P.S입식이 '86년에 비해 무려 38% 증가한 235만수 가량 입식되어 병아리를 생산함에 따른 C.C생산과잉이라 볼 수 있다. 물론 10% 내외는 증계의 조기도태나 환우 등으로 그때 그때 생산조절이 가능하겠지만 38%라는 것은 불황의 장기화가 되지 않고서는 감축이 안될만큼 생산과잉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88년도에는 '87년에 비해 6.3% 증가한 250만수가 입식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업계 스스로 생산조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과잉생산 우려스럽다.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발표됨으로 해서 전사양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한 정보전달이나 모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관련업자의 조기회복대책에 참여도가 낮았다고 생각된다.

금년도 부화업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86년 이후 계속 규모 확장에 즉 평사사육에서 케이지사육으로 변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확장이 최근 2년간 양계업계 전체가 불황을 맞고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감축을 함으로써 자연적 생산감소로 인해 계값을 받는 경우가 되었으나 업계가 살기 위해서는 적정 사육수수 조절은 업계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는 것만큼은 큰 교훈으로 남겼다. **양계**